

## ‘좀비기업’ 광주·전남에 266개

외감법인 3개 중 1개 꼴 영업이익으로 은행이자도 못갚아  
 금융위·한은, 구조조정 ‘고삐’... 지역경제 체질개선 시급

광주·전남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도 못갚는 ‘좀비기업(한계기업)’이 10개 중 3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지자체나 금융당국이 해당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12월 결산 비금융 외감법인(2만 429개사)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27일 재발달검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 1 미만인 기업은 광주가 424개 중 145개로 34.2%, 전남이 371개 중 121개로 32.6%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32.1% 보다 높은 수치다. 외감법인은 자산총액이 120억원이 넘는 회사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이다.

이처럼 좀비기업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업종별로 볼 때 어업·숙박·서비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이 업종이 많은 광주·전남의 경우 좀비기업의 수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기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밝히는 등 기업 환경개선에 고삐를 죄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외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계기업은 비교적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 한계

**?** 좀비기업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한계기업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보조나, 상습적인 만기연장을 받고 있는 기업.

기업 비중은 2009년 12.8%(2698개)에서 4년 만인 지난해 말 2.4%(597개)가 늘어난 15.2%(3295개)로 증가했다. 더욱이 과거(2005~2013년) 한계기업 경험에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 일명 좀비기업은 지난해 말 2435개로 전체 한계기업의 73.9%를 차지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도 금융위원회가 산업경쟁력, 협력업체 상황, 지역경제 영향 등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기반을 두고 지역 좀비기업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한 때 연구개발(R&D) 업종에 대해 미래를 보고 정부차원에서 대출을 권장했던 시기가 있었다”며 “이런 기업들은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재무건정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혼선을 피하기 위해 서로라도 한계기업 모두를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보기보다 여신 재분류과정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을 상습적으로 하는 대상기업 위주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낙엽이 전하는 ‘가을 이야기’ 가을비가 내린 27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중외공원 산책로에서 한 모자(母子)가 낙엽이 수북한 거리를 걸으며 늦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장흥 공무원 48억 물어낼판 ▶6면

감성문화관광 1번지 강진 ▶11면

문화자산- ‘이중섭과 제주’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 현역병 입영 2년간 2만명 늘린다

군 입대 적체 해소 위해

당정은 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애초 예정된 현역병 입영 정원을 2만명 늘려 추가 입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60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내년에 1만명, 후년에 1만명의 현역 신병을 추가로 충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

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이 전했다.

현재 연간 현역 입영 인원은 25만명 수준으로, 1만명 정도를 더 수용할 역량과 시설은 충분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당정은 또 산업기능요원 입대 자원을 연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역사교육 정상화는 우리 세대의 사명”

박대통령 시정연설  
 野, ‘국경화 반대’ 침묵사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

이 한층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 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중요한 경제활성화 방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경 교과서 반대’, ‘민생 우선’ 등의 구호가 적힌 인쇄물을 분회회장 의석의 컴퓨터 모니터 뒤에 붙여놓고 침묵시위를 벌였으며 정의당 의원들은 분회회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 옛 국군광주병원, 국가폭력 치유시설 505보안대는 역사교육·체험공간으로

5·18 기념사업 1차 보고서

5·18사적지인 옛 국군광주병원은 5·18 등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시설로, 그리고 옛 505보안대는 체험 및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남대 5·18연구소는 지난 5월 광주시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5·18민주화 운동기념사업 마스터플랜(기본계획)’ 1차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18사적지 23호로 지정된 국군광주병원 옛터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치유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기존 건물과 시설물 36개 동을 트라우마 치유 및 요양 시설로 손보고, 9만4000여㎡에 이르는 병원부지 중 녹지는 컴퓨터 개방한다.

사적지 26호인 쌍촌동 옛 505보안대 3만2000여㎡ 부지에 대해서는 5·18의 기

역을 미래 세대에 전하는 역사교육 공간이자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제안을 내놨다. 관사 등 부속건물 14개 동을 청소년 학습장작 공간과 5·18 순례자를 위한 방문자 숙소로 고친다는 구상이다. 부대 안 지형을 활용한 놀이터 등 어린이들의 방과 후 체험학습 공간도 들어선다. 505보안대는 5·18 당시 계엄군의 지휘본부 역할을 했던 곳이자 시민군 등이 고문당했던 장소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국방부로부터 국군광주병원, 기무부대 옛터 일부와 건물 등을 양여 받았다.

연구소는 이 같은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시민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종 용역은 내년 3월께 마무리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시간을 거슬러  
 눈부시게 빛나는 길  
 헤라 에이지 리버스 쿠션

시간을 거슬러는 빛을 가져오고  
 피부에 빛을 머금어 빛이 되게 하고  
 속에서부터 피부를 되살려주는 에이지 리버스 쿠션-  
 눈부신 빛과 젊음 그 모든 것을 갖고 더 눈부시게

HERA